

대학 고학년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고영희, 박윤희*
송실대학교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n the Senior Students' Employment Stress

Yeong-Hee Ko, Yun-Hee Park*
Soongsi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 대학교 3, 4학년 학생 502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연령은 취업스트레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는 취업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대학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학당국의 맞춤형 진로지도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취업스트레스, 진로지도, 대학 고학년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n employment stres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can lower employment stress. For this purpose, the subject of 3rd and 4th grades 502 students in S university was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gender and age were found to affect overall employment stress. Female students had higher employment stress than male students, and the older they were, the higher the employment stress. Seco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had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stress.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career guidance of university authorities.

Key Words :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Employment Stress, Career Guidance, Senior Students

1. 서론

인간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질, 능력과 적성을 바탕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을 좌우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으며 진로를 선택하고 개발하여 성취하는 일은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라고 할 수 있다[1].

특히 대학생활은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준비하는 시기로 대학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학업 및 진로 영역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진로영역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높은 청년실업률로

*Corresponding Author : Yun-Hee Park(poohwinn@ssu.ac.kr)

Received November 29, 2017

Accepted January 20, 2018

Revised December 29, 2017

Published January 28, 2018

대변되는 취업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2].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전년 대비 0.2% 상승한 9.2로 나타났다[3]. 그러나 실제 체감 실업률은 통계청의 공식 실업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청년고용 체감지표 설계·연구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실업자를 실업률 통계에 포함할 경우 2015년도 체감 청년 실업률은 34%대로 추산된다[4].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경제성장률 하락, 일자리 창출능력의 저하 및 괜찮은 일자리 부족으로 귀결될 수 있다[5].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해 볼 때, 향후 대학생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적절한 수준의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심각한 취업스트레스의 경우 불안, 분노, 우울감 등의 정서를 유발할 수도 있다[6].

이렇게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취업스트레스는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한 높은 실업률 이외에도 개인이 진로 발달 과정에서 겪는 진로선택과 준비에 관한 내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선택이나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7]. 따라서 취업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진로발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내적인 요인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취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결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진로와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와 능력 즉 진로성숙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8]. 또 자신의 직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데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개인의 신념,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9].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사회구성원으로 첫 진입을 시도하는 20대에 대한 연구이자 취업준비 시기에 직면한 대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연구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10]. 특히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업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과 이러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다룰 수 있는 변인, 그리고 대처방법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점차 중요해지

고 있다[11].

국내 문헌에서는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몇몇 연구 주제들을 찾을 수 있지만 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문헌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12]. 국내에서는 그간에 취업스트레스와 신체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13-15], 최근에 들어서야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10]. 특히 4년제 대학생 중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 취업스트레스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실제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에 있는 대학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취업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설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 고학년 학생들의 성별, 학년, 연령에 따라 취업스트레스 전제와 하위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 고학년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는 취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문헌고찰

2.1 취업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개인이 투입된 상황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결합상태임을 지각하고,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16]. 이러한 스트레스가 취업 상황과 관련된 경우를 취업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황성원[13]은 졸업 후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대학생활 중에 신체적·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취업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 이미숙[17]은 취업과 관련하여 개인의 능

력을 넘어서는 내·외적 요구에 대하여 개인 스스로의 인지와 그에 따르는 적응 정도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개인의 감정적, 행동적, 육체적 반응을 취업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신체적·심리적 불균형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스트레스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학년에 따라 각각 상이한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들에[18,19] 반해, 여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거나[20,21] 남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다고[22]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성격스트레스[23,24], 학교환경스트레스[25]와 학업스트레스[26]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취업스트레스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21,26,27]. 김정현[19]은 3학년에 비해 4학년의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나 김영미[22]는 4학년에 비해 3학년의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불안스트레스[28], 성격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24]. 이에 반해 강유리[25]는 학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스트레스의 경우 2, 3학년이 1, 4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연령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학년과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솔지와 이주락[28]은 취업불안스트레스의 경우 21세~22세가 20세나 23세 이상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취업을 직접 준비하는 중간연령층의 취업불안스트레스가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29]. Betz, Klein과 Taylor[30]는 특정 분야의 과제 수행 보다는 일반적인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CDM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개발하여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일반적인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으로 확장시켰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두 변인 간에는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15,31],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2].

김명옥[11]은 1, 2학년을 제외한 3, 4학년에서만 두 변인 간에 부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김윤경[5]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를 낮추는 예측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이 취업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미경[31]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 가운데 직업정보와 문제해결 하위요인이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부적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학업스트레스 요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목표설정, 직업정보, 문제해결 하위요인들의 부적 관련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김평수 외[33]는 가족환경스트레스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목표설정에 정적인 영향을, 학업스트레스는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학교환경스트레스는 문제해결 하위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스트레스는 미래계획에 부적적인 영향을, 취업불안스트레스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서로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간의 명확한 관계 규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3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레스의 관계

진로성숙은 진로선택 과정에서 동일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인지적·정의적 특성에 근거한 상대적인 직업준비 정도로 일관되고 명확하며 현실적인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능력이다[34]. 진로성숙은 타당한 진로결정을 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진로행동, 진로문제, 진로의 중요성, 직업가치와 선호직업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35].

취업스트레스를 독립변인,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인으

로 한 연구들은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 간에 부적인 관계를 보고하였다[20,36,37]. 이에 반해 강유리[25]와 오소제[23]는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진로성숙도도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선택이나 취업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를 촉진하고 개인이 보다 확실한 진로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서운[37]은 취업스트레스 전체와 하위요인들이 높게 나타날수록 진로성숙도는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김윤경[5]은 디자인 전공자와 일반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집단과 디자인 전공집단에서는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 전공집단에서는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진로성숙도를 독립변인, 취업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들은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8,26,38,39]. 또 이주재와 이재경[12]은 진로성숙도가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고 취업스트레스를 예측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진로성숙도라고 보고하였다. 천만봉과 이종구[40]는 진로의식성숙은 취업준비활동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조절변수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 관련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윤경[5]은 취업스트레스의 성격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으로 목적성 요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결정성 요인이 학교환경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와 가족환경스트레스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정현[19]은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들 중 결정성, 독립성, 확신성은 취업스트레스에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목적성은 취업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만수[26]는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하위요인별로는 준비성을 제외한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독립성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 간에는 연구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주요 요인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레스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자 및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15년 2학기 서울소재 S대학교에서 진로 및 취업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한 3학년 학생 268명과 4학년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명의 인원을 제외한 50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취업스트레스 전체와 각각의 하위요인들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별, 학년, 연령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검증결과 분산팽창계수(VIF)의 범위가 1.247과 2.705 사이에 있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도 .370에서 .845사이에 있어서 .1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는 Betz, Klein과 Taylor[30]가 제시한 CDMSES-S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 25 문항을 이기학과 이학주[41]가 대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타당화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과 자기평가의 하위요인 총 25 문항(1-9 평정)으로 구성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Cronbach's α 계수는 .932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측정도구는 이기학[42]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도 검사도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진로성숙도 검사는 진로선택 과정에서 태도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검사로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과 독립성의 하위요인 총 47문항(1-4 평정)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성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98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 측정도구는 Brodman, Erdmann과 Wolff[43]가 개발한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rnell Medical Index: CMI)을 토대로 황성원[13]이 수정·개발하고 강유리[25]가 수정·보완한 취업스트레스 검사도구(Employment Stress)를 사용하였다. 취업스트레스 검사도구는 성격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총 22문항(1-5 평정)으로 구성하였다. 취업스트레스의 Cronbach's α 계수는 .919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Table 1>과 같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The Characteristic of Participation

Variance		Number	Percentage(%)
Sex	Female	207	41.2
	Male	295	58.8
Grade	3	268	53.4
	4	234	46.6
Age	Under 22	136	27.1
	23	128	25.5
	24	107	21.3
	25 or older	131	26.1
total		502	100

4.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취업 스트레스 전체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는 각각 취업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높을 경우 취업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투입하였다. 투입결과 성별과 연령은 취업스트레스 전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A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on Employment stress

Varianc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Demographic factor	(a constant)		-0.590		1.192		3.453
	Male	-.310	-4.956***	-.225	-3.718***	-.125	-2.372**
	3rd grade	.004	.073	-.031	-.610	-.063	-1.470
	Age	.216	3.176***	.185	2.857**	.143	2.585**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ollecting occupational information			-.056	-.995	-.124	-2.555**
	Goal setting			-.172	-2.815**	.016	.289
	Planning			-.069	-1.043	-.020	-.345
	Problem solving			-.032	-.578	.005	.102
	Self-evaluation			-.070	-1.162	.006	.122
Career maturity	Decisiveness					-.117	-2.370**
	Goal Orientation					-.178	-4.657***
	Confidence					-.409	-8.392***
	Preparation					.130	3.244***
	Independence					-.070	-1.782
Adj. R ²				.057***		.107***	.244***

* $p < 0.05$, ** $p < 0.01$, *** $p < 0.001$

두 번째 모형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을 투입하였다. 투입 후에도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동일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가운데 목표설정 요인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들을 투입하였다. 투입 후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모형 1과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모형에서 유의했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목표설정 하위요인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정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들이 함께 고려될 경우 목표설정은 더 이상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며, 직업정보 수집에 대한 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은 부적인 영향을, 준비성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진로정보 수집능력이나 진로의사 결정능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취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성격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able 3>의 첫 번째 모형에서 성별과 연령은 성격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연령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동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 중 목표설정만이 성격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모형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과 연령에서 이전 모형들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추가로 학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학년이 3학년보다 성격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들이 함께 고려될 경우 학년에 따른 성격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모형에서 유의했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목표설정 하위요인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정보 하위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스트레스 전체와 동일한 결과이다.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들 가운데 목적성과 확신성이 부적인 영향을, 준비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on Personality stress

Varianc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Demographic factor	(a constant)		-1.416		.114		1.812
	Male	-.369	-6.035***	-.300	-4.967***	-.195	-3.644***
	3rd grade	-.058	-1.130	-.080	-1.604	-.111	-2.551***
	Age	.247	3.711***	.221	3.417***	.179	3.193***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ollecting occupational information			-.032	-.570	-.106	-2.135*
	Goal setting			-.135	-2.228*	.022	.395
	Planning			.005	.079	.041	.704
	Problem solving			-.084	-1.543	-.047	-.978
	Self-evaluation			-.086	-1.431	-.015	-.288
Career maturity	Decisiveness					-.073	-1.452
	Goal Orientation					-.142	-3.648***
	Confidence					-.414	-8.369***
	Preparation					.171	4.187***
	Independence					-.055	-1.388
Adj. R ²		.098***		.074***		.217***	

* p<0.05, ** p<0.01, *** p<0.001

4.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취업 불안스트레스 전체에 미치는 영향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첫 번째 모형에서 성별, 학년, 연령은 취업불안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3학년보다 4학년이,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불안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성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투입된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미래계획은 정적인 영향을, 자기평가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A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on Unstable job stress

Varianc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Demographic factor	(a constant)		-0.736		.400		1.719
	Male	-.144	-2.297*	-.095	-1.500	-.034	-.565
	3rd grade	-.129	-2.455**	-.135	-2.576**	-.161	-3.270**
	Age	.180	2.653**	.154	2.276*	.119	1.866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ollecting occupational information			-.070	-1.190	-.114	-2.027*
	Goal setting			-.062	-.976	.053	.818
	Planning			.139	2.014*	.139	2.079*
	Problem solving			-.085	-1.479	-.059	-1.076
	Self-evaluation			-.135	-2.141*	-.106	-1.749
Career maturity	Decisiveness					-.076	-1.332
	Goal Orientation					-.164	-3.705***
	Confidence					-.197	-3.512***
	Preparation					.144	3.102***
	Independence					-.080	-1.759
Adj. R ²		.057***		.040***		.116***	

* p<0.05, ** p<0.01, *** p<0.001

마지막 세 번째 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학년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4학년이 더 높은 취업불안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는 2단계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직업정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했던 자기평가 하위요인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이 함께 투입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들 가운데 목적성과 확신성은 취업불안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준비성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4.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가족환경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able 5>의 첫 번째 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반영된 모형 1은 모형자체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999, p>.05).

두 번째 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 중 목표설정이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A result of multileve analysis on Home environment stress

Varianc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Demographic factor	(a constant)		-.004		.856		2.111
	Male	-.100	-1.557	-.054	-.841	.002	.030
	3rd grade	.056	1.036	.027	.512	.009	.174
	Age	.114	1.629	.099	1.431	.075	1.146
	Collecting occupational information			-.071	-1.167	-.109	-1.878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Goal setting			-.126	-1.966*	.002	.023
	Planning			-.109	-1.551	-.070	-1.016
	Problem solving			.059	1.003	.084	1.490
	Self-evaluation			.028	.428	.075	1.205
	Decisiveness					-.079	-1.350
Career maturity	Goal Orientation					-.152	-3.323**
	Confidence					-.264	-4.540**
	Preparation					.050	1.051
	Independence					-.030	-.638
	Adj. R ²	.006		.046**		.109**	

* p<0.05, ** p<0.01, *** p<0.001

마지막 세 번째 모형에서는 2단계에서 유의했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목표설정 하위요인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이 투입된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목적성과 확신성은 가족환경스트레스에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학교환경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첫 번째 모형에서 여

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취업준비 과정에서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수준과 지도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이전 단계에서와 동일하게 여학생들의 학교환경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은 모두 학교환경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A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on School environment stress

Varianc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Demographic factor	(a constant)		.480		1.595		3.117
	Male	-.268	-4.257***	-.209	-3.311***	-.143	-2.370*
	3rd grade	.003	.065	-.019	-.357	-.047	-.962
	Age	.106	1.544	.085	1.261	.048	.751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ollecting occupational information			.019	.324	-.024	-.436
	Goal setting			-.109	-1.719	.026	.406
	Planning			-.085	-1.232	-.073	-1.100
	Problem solving			.000	-.003	.023	.421
	Self-evaluation			-.079	-1.258	-.039	-.641
Career maturity	Decisiveness					-.109	-1.966*
	Goal Orientation					-.148	-3.365***
	Confidence					-.208	-3.720***
	Preparation					.123	2.677**
	Independence					-.100	-2.203*
	Adj. R ²	.047***		.049***		.125***	

* p<0.05, ** p<0.01, *** p<0.001

마지막 세 번째 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도 모형2에서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들은 모두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독립성은 학교환경스트레스에 부적의 영향을, 준비성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성은 취업스트레스 전체, 성격스트레스와 취업불안스트레스에 이어 지속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4.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able 7>의 첫 번째 모형에서 성별, 학년, 연령 모두가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3학년이 4학년보다, 연

령이 많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결과는 앞서 살펴본 취업스트레스 전체와 성격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와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학년에 따른 결과는 오히려 상반된 결과로 취업불안스트레스는 4학년 학생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학업스트레스는 3학년 학생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7> A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on Schoolwork stress

Varianc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Demographic factor	(a constant)		-.394		1.743		3.494
	Male	-.248	-3.919**	-.148	-2.502**	-.062	-1.144
	3rd grade	.112	2.099*	.063	1.279	.044	.993
	Age	.166	2.409**	.134	2.115*	.108	1.910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ollecting occupational information			-.074	-1.341	-.127	-2.551**
	Goal setting			-.204	-3.432***	-.028	-.490
	Planning			-.161	-2.482**	-.072	-1.206
	Problem solving			-.025	-.459	.001	.011
	Self-evaluation			-.032	-.534	.063	1.162
Career maturity	Decisiveness					-.121	-2.379**
	Goal Orientation					-.087	-2.219*
	Confidence					-.416	-8.323***
	Preparation					.007	.175
	Independence					-.020	-.484
Adj. R ²			.032**		.171***		.174***

* p<0.05, ** p<0.01, *** p<0.001

두 번째 모형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모형 1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들 중 목표설정과 미래계획은 학업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세 번째 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유의했던 목표설정과 미래계획 하위요인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정보 하위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이 투입된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들 중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요인이 학업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과 연령은 취업스트레스 전체, 성격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관련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20,21,40]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남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22]와는 배치되는 것이고, 성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8,19,40]와도 상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년의 경우,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21,24,26,40]와 일치한다. 또 연령의 경우 21세~22세 즉 중간연령층이 가장 취업불안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28]와는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목표설정은 취업스트레스 전체,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래계획은 취업불안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학업스트레스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평가는 취업불안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간에 부적인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결과[5,15,31]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에 직업정보와 문제해결이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 모두에서 부적 관계를 갖는다는 결과[31]와는 완전히 불일치하는 것이다. 또 목표설정이 가족환경스트레스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래계획이 취업불안스트레스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33]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진 결과는 모형 2에서 취업스

트레스와 관련성이 없었던 직업정보 요인이 진로성숙도가 투입된 모형 3에서는 취업스트레스와 부적인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직업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진로성숙도와 함께 고려될 때 취업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진로성숙도는 취업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가운데 목적성과 확신성은 취업스트레스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성은 취업스트레스 전체, 학교환경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에, 독립성은 학교환경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준비성은 취업스트레스 전체, 성격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와 학교환경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에 부적인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결과[8,26,39,40]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에 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연구결과[23,25]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가운데 결정성, 독립성과 확신성이 취업스트레스 전체에 부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한 연구[19]와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과 독립성이 취업스트레스 전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6]와도 부분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결과는 준비성 요인과 취업스트레스 전체 및 하위요인 간의 정적인 관계이다. 준비성은 진로정보 수집능력과 진로 의사 결정능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차원으로 준비성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대학 고학년 학생들은 준비성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취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준비성이 높을수록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더 높은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대학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차원의 다양한 진로와 취업관련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 중 특히 목표설정, 직업정보와 준비성 요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이 취업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목표설정과 직업정보 탐색을 위한 자신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진로정보 수집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스트레스를 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 현장에서는 맞춤형 학생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적합한 진로목표 수립을 지원함은 물론 희망하는 진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분석을 통해 진로성숙도의 목적성과 확신성 하위요인이 취업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요인으로 밝혀졌다. 목적성은 직업가치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관련이 있고, 확신성은 자신의 능력과 태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직업인으로서 올바른 삶의 가치와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교과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향후에도 취업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탐색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직업선택을 도움으로써 취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S. A. Kim & S. E. Kim, "Characteristics of the Employment Stress and the Level of Career Maturity f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ancing."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Vol. 10, No. 1, pp. 53-60, 2014.
- [2] E. K. Pyo,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 Seeking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Female College Student's Way of Coping with Stress." Master'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2009.
- [3] Statistics Korea,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3/1/index.board?bmode=read&aSeq=350893. (January 13, 2016)
- [4] S. J. Park, <http://weekly.donga.com/List/3/05/11/840093/1>. (February 8, 2017)
- [5] Y. K. Kim,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Stress of Design Major Students: Focused on the Career Maturity Factor." Ph.D.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 2015.
- [6] M. J. Park, Jin-Hee Kim & Min-Sun Ju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for Preparing Employment."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1, pp. 417-435, 2009.
- [7] Y. H. Son,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Career Decis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29, No. 1, pp. 235-253, 2010.
- [8] M. J. Cho,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Anxiety and Stress."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2010.
- [9] J. H. Seo,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and Ego-resilience on Adjustment to their university Life."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2012.
- [10] M. Y. Kang, "Moderation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 seeking activity, Spec 5 activity, on the relation of Job Preparing Stress and the Adjustment to College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2.
- [11] M. O.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ing Behavior and Jobs Seeking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Moderation Effect of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1.
- [12] C. J. Lee & J. K.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Career Dece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Stress among Students of Health Care and Social Work."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38, No. 3, pp. 319-339, 2014.
- [13] S. W. Hwang,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1998.
- [14] H. S. Cho, "The Effects of Gender Role Identity and Self-control on Job Stress."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2009.
- [15] Y. K. Lee & K. H. Kang, "The Analysis About Employment Stress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of Undergraduates-In Focus of Engineering and Social Science College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 14, No. 2, pp. 60-67, 2010.
- [16] R. S. Lazarus &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1984.
- [17] M. S. Lee, "A Study on the Employment Stess Scale."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1
- [18] E. H. Park & E. T. Lee, "The effects of undergraduates'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ego-resilience on jobs seeking stres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4, No. 4, pp. 5-30, 2013.
- [19] J. H. Kim,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o Stress Induced from Seeking Job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2015.
- [20] S. H. Park & H. J. Park,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Career-related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6, No. 1, pp. 67-81, 2009.
- [21] K. H. Kang,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Self-Estem and Employment Stress"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2010.
- [22] Y. M. Kim, "A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Statu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1991.
- [23] X. T. Wu, "A Study on the Job-seeking Stress and the Career Maturity of Teachers'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10.
- [24] M. O. Kim & Y. S.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ing Behavior and Jobs Seeking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Morder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11, pp. 69-90, 2012.
- [25] Y. R. Kang, "The Influence of Jobs seeking Stress on Their Career Maturity Dance Majoring Student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06.
- [26] M. S. Kim,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Ego Resilience on their Job-seeking stress." Master's Thesis, Dongshin University, 2016.
- [27] B. M. Kang, "The Causes of Social Stress and Way of Coping with Stress o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Konkuk Univetsity, 2003.
- [28] S. J. Lee & J. L. Lee, "The Effect of Job Search Stress on Career Maturity among the Students of Security Services." *Korea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Vol. 42, pp. 179-203, 2015.
- [29] G. Hackett, & N. E. Betz,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18, pp. 326-339, 1981.
- [30] N. E. Betz, K. L. Klein, & K. M. Taylor,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4, No. 1, pp. 47-57, 1996.
- [31] M. K. Lee, "A Study on the Job Seeking Stress and Career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Hanil University an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2004.

[32] S.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Parent-Related Career Suppor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3, No. 3, pp. 1461-1479, 2012.

[33] P. S. Kim, K. Kim, S. Y. Seo & Y. N. Kim, "The Study about the Effect on Self-effectiveness of a Course Decision of Duty Stress in the College Students Related to Guard Major Study." *Korea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Vol. 31, pp. 47-71, 2012.

[34] J. O. Crite,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Minterey, CA: CBT/McGraw-Hill. 1978.

[35] B. W. Westbrook, "What research says about career maturity: A response to Cites, Wallbrown, and Blah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6, pp. 239-250, 1985.

[36] G. P. Ko & M. Y. Sim, "The Structural Relation of Self-efficacy, Job Stress,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7, No. 1, pp. 19-38, 2014.

[37] S. Y. Le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Jobs Seeking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Dongshin University, 2015.

[38] S. M. Park,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on Their Job-seeking Stres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2013.

[39] H. J. Kim,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Attach to Parents, Career Maturity and Self-Esteem on Employment Stress." Ph.D.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2014.

[40] M. B. Cheon & J. G. Lee, "A Study on the Factors of Job Seeking Stress for Graduand in Korean: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Efficacy."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Vol. 20, No. 6, pp. 191-214, 2013.

[41] K. H. Lee & H. J. Lee, "The Effect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2, No. 1, pp. 127-136, 2000.

[42] K. H. Lee, "A Study on the Cultural Validity of Career Attitude Measurement Tool." *The Journal of Korea*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10, No. 1, pp. 213-226, 1999.

[43] K. Brodman, A. J. Erdmann Jr., & H. Wolff. "Cornell Medical Index: Health Questionnaire." NY: Connell University Medical College, 1969.

고 영 희(Ko, Yeong Hee)

[정회원]



- 1991년 2월 : 제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 학사
- 2011년 8월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상담교육학과 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평생교육, 코칭, 진로
- E-Mail : kcat15@sen.go.kr

박 윤 희(Park, Yun Hee)

[정회원]



- 1989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 2009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 석사
- 2010년 2월 :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교양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커리어코칭, HRD, 평생교육
- E-Mail : poohwinn@ssu.ac.kr